

# Dave Mathewson 박사, 신약 문학,

## 강의 16, 고린도전서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저는 신약 역사와 문학 과정의 고린도전서 16강의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

좋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마지막 수업 시간은 사실 지난 주에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뭉치 중 하나인 바울의 서신이나 사도행전에 소개된 사도 바울의 서신을 구성하는 부분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수업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보기 시작했는데, 천천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천천히 살펴볼 책 중 하나입니다. 샘플 텍스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고린도전서의 서너 장 또는 섹션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연설과 그가 그것을 어떻게 언급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내는 우리의 능력,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처음 읽을 때의 모습이나 익숙했던 읽기와는 매우 다른 이해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시작하여 고린도전서의 특정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렵고 겸손한 일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아닌 아버지의 말씀, 말씀,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가 기꺼이 본문과 씨름하고 본문과 우리 자신에 대해 어려운 질문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관찰은.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는 바울과 고린도인들 사이에 계속되는 의사소통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관점에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 18장을 읽으면서 고린도인들의 배경에 대해 더 자세히 읽을 수 있고,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 쓴 고린도서에서 약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던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발생하는 특정 요인과 문제로 인해 바울은 일련의 편지를 쓰면서 그러한 문제와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술적으로 고린도전서가 실제로는 고린도후서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이전에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언급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볼 수 없고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는 엄밀히 말하면 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라고 부르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고린도후서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가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고린도후서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는 일부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심각한 편지가 고린도후서의 또 다른 편지와 결합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고린도후서에 언급된 엄중한 편지가 별도의 편지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쓴 편지는 적어도 4통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후서라고 부르는 것에는 그중 2개만이 존재하거나 현존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바울과 그의 독자들 사이에 너무 많은 상호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재구성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고 그에 응답할 것이라고 가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에 기초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언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책을 나누거나 고린도전서에 대해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 계획이나 구성 방법을 고려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정보를 받은 방식으로 책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그곳에서 1년 반을 보내며 교회를 세운 후, 바울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글썄요, 처음 6장은 입소문을 통해 바울에게 다가온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누군가의 보고를 듣고 처음 6장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순서대로 다루거나 일종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반면에 7장부터 16장까지는 바울이 서면 보고에 답변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7장 1절에서 바울은 이제 여러분이 쓴 문제에 관해 말합니다. 그러니까 편지였든 뭐든 또 그때는 고린도교회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을 테지만 지금은 바울이 편지를 통해 알게 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답하는 것 같습니다.

편지를 나누는 또 다른 방법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자주 이방인을 특징짓는 방식에 따라 나누는 것인데, 그것은 두 가지 주요 죄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도 찾을 수 있고, 유대 문헌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신약의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성적 부도덕과 우상 숭배라는 두 가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유대인의 일반적인 이해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내용은 유대 문헌 전체에 나타나므로 첫 번째 5장부터 7장까지 모두 성적 부도덕 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에 따르면 이방인들이 범하는 일반적인 죄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4장까지는 많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의 또 다른 특징적인 죄인 우상 숭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15장은 부활의 소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바울이 단지 많은 문제들과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다루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나 분명해지며, 그것들은 종종 이 문구로 소개됩니다.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말하며, 이제는 신령한 은사에 대하여 말하며, 이제는 이것에 대하여 말하며, 이제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일련의 문제들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도식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나는 이것이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구약의 관점에서 고린도의 많은 문제를 다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그가 고린도인들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그의 해결책에 대해 구약성서의 해석을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면 왜... 예, 계속하세요.

5~7장이어야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와 그 내용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애초에 고린도전서를 써야만 했을까요? 즉, 바울이 앉아서 이 편지를 쓰게 된 원인이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바울은 현대 그리스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는 데 1년 반을 보냈습니다. 떠난 후, 지금 바울이 입에서 말과 글을 통해 듣게 된 교회에 침투한 어떤 문제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일련의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 앉아서 이 편지를 작성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라고 부르는 바울이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것을 써야만 했을까요? 고린도에서는 어떤 주요 문제들이 일어났습니까? 글썄, 나는 그 중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록 많은 것 같지만.

그리고 이것을 요약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고린도 문화가 교회에 침투한 것 같습니다. 즉, 일이 일어나는 방식,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방식,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고린도의 세속 문화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이제 교회에 침투하여 바울이 지금 다루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문제는 그 중 하나가 리더십의 위기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수업의 첫 주 또는 두 주 정도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아주 오래 전에 우리가

후원자-고객 관계에 관한 몇 가지 문화적 가치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즉, 후원자는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나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의 지원에 대한 대가로 가난한 사회 구성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일종의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위를 가진 부유한 사회 구성원이었습니다.

즉, 그 사람은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말함으로써 후원자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이러한 문화적 가치에 흠뻑 젖어 있었고 특정 사회적 지위를 지닌 부유한 사람들의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고린도 사회의 지도자들을 사회적 지위의 관점에서 보았을 것이며 그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지혜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소포스(sophos)에서 유래한 소위 소피스트(sophists)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소피스트는 현명한 선생이었고 소피스트는 기본적으로 경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추종자를 위해 경쟁했을 현명한 선생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들 사이의 이러한 경쟁, 이러한 정치적 논쟁, 지위 증진, 지위 경쟁, 사회적 지위와 부에 대한 강조, 이것은 1세기 고린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사회적 요소였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이며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읽을 문제 중 일부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또 다른 문제는 성적 부도덕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로마 제국에는 확실히 한계와 경계가 있었고, 그들이 무시하고 용납할 수 없는 특정 성적 활동이 있었지만, 성에 대한 로마인의 태도는 분명히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고 훨씬 더 자유롭고 느슨했습니다. 있었다. 그래서 특히 때때로 특정 종교 관습과 이교 종교의 특정 종교적 축하 행사와 관련하여,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낸 18개월 기간 동안 많은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왔다면 이 모든 것을 함께 덧붙였습니다. 그 환경에서 벗어나 지금도 여전히 그 환경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바울이 다루는 많은 문제는 성에 대한 그리스-로마의 여러 견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린도 사회와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교회에 침투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문제 또는 관점이나 가치관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설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고린도전서의 몇 가지 중요한 구절을 살펴보고 고린도전서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와 도시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재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들 중 바울이 자신이 한 일을 기록하게 만들었던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서의 여러 부분에서 읽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중 몇 가지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만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들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바울이 고린도인들이 다른 사도들과 다른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바울이 1장에서 시작하고 10절부터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다루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가 이 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다른 여러 문제를 설명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일종의 고린도적 사고와 그리스-로마적 사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뜻을 같이하여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글로에의 사람들이 나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이 고린도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해 바울에게 입소문이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클로이의 집 사람들에게서 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종류의 싸움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토록 염려하고 있는 이러한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다. 여러분 각자는 내가 바울에게 속했고, 아볼로에게

속했고,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졌습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제 문제로 보이는 것과 그가 3장을 통해 언급할 내용은 이 구절들이 분열과 다툼이 이러한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체화된 불화에 의해 발생했음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폴의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는 게바나 베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했을지 궁금할 것입니다. 글썄, 우리가 방금 말한 바에 따르면, 고린도인들은 고린도 사회의 지도자들을 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강조하는 사회적 지위, 전체 후원자-고객 역학, 그들이 이러한 궤변가를 추종자를 위해 경쟁하는 현명한 교사인 궤변가로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든 고려된다면, 고린도인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 아볼로, 게바 또는 베드로와 같은 교회의 지배적인 인물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그들이 익숙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고 있던 고린도 도시의 지도자들을 대하고 정치적 영향력과 사회적 지위 등의 측면에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제 바울은 기본적으로 그의 반응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여러분의 교회 지도자들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여러분은 반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고린도의 지혜를 반성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의 지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굴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표준에 비하면 실제로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지위에 대한 이러한 소란을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 세속적인 고린도의 지도자들에게 하듯이 대우하고 서로 연합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 고린도의 지혜를 반영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여 측정할 때입니다. 십자가에 못박혀 고난당하신 주님의 복음, 그 지혜는 결국 어리석음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교인들에게 세속적인 고린도에서 지도자들을

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도자들을 대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게 그들을 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따라서 처음 세 장에서 바울은 단지 일반적인 분열이나 다투고 경쟁하는 인간의 성향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그는 고린도 문화와 고린도인들이 지도자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매우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회적 지위와 그에 비추어 리더를 대하는 것은 후원자-고객 관계입니다. 이것은 또한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해지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이것은 또한 바울이 고린도인들의 재정적 지원을 거부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다른 교회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의향이 있었지만 고린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으며 아마도 자신과 거리를 두기를 원했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면 전체적인 정치적 논쟁과 사회적 지위 및 후원자-고객 관계 등. 그래서 그는 그것을 피하고 싶었고, 그래서 고린도인들과는 다른 전략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피볼 빌립보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그는 그들의 재정적 지원을 기쁘게 받아들여 그들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인들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들로 인해 바울 자신이 자기 생활을 위해 일했습니다. 5장. 고린도전서 5장. 다시 한 번 건너뛰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장을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 몇 가지만 선택했습니다. 5장은 매우 흥미로운 본문이며, 고린도전서 5장의 문제를 촉발시키고 바울이 그 문제를 다루게 만든 배경과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때만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다소 기괴한 텍스트입니다. 그는 이 구절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5장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수사법이 아닙니다.



나는 그가 세속적인 고린도 사회에서도 정죄받고 멸시받는 상황을 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교도들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남자가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그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그의 계모를 분명히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이 놀랍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에 대해 오만하거나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슬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도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애통하는 것은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 오히려 이것을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너희가 자랑하고 교만하게 하는 것은 너희 중에 이 사람이 있으니 너희 가운데는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니라. 너희 교회에 그 아버지의 처, 그 계모와 동침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는 회개하기를커녕 자랑하고 이 일한 자를 너희 중에서 제하여 버리려고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을 상대하기를커녕 자랑하고 참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또 다른 많은 질문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런데 왜 교회는 그것을 용납하고 자랑하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이 있는데, 심지어 세속적인 이교인 고린도교인들도 이것을 무시하고 용납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합니다.

우선, 문제는 분명히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남자 자신이나 그 남자의 계모에게 그다지 많이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대신,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이 화를 낸 것은 그 남자의 성적인 죄가 아니라 교회가 그것을 오만하게 용인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핵심 문제는 교회가 상황을 처리하는 대신, 그가 말했듯이 그 사람을 그들 가운데서 제거하는 대신 그것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에 대한 그의 해결책은 고린도교회가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이 부도덕한

사람을 추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이 개인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가 상황을 대하는 방식과 그들이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식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우선, 왜, 다시 첫 번째 질문은 애초에 이 개인이 왜 그럴 것인가, 왜 그럴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텍스트에서는 그가 실제로 계모와 결혼했는지 아니면 단지 결혼 밖에서 그녀와 함께 살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Paul은 그것에 대해 화를 냈고 우리는 잠시 후에 왜 그것이 금지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 개인은 그리스-로마 사회조차 경멸할 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 하나는 이 사람이 계모와 결혼하게 된 이유가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돌아가셨거나 그들도 이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계모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면 아버지의 상속 재산도 그녀와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모와 결혼할 때 그는 계모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새 배우자에게 가져가는 대신 가족의 돈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가 가족의 돈을 유지하기 위해 계모와 결혼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가 조용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지만 해당 라인을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질문은, 왜 교회가 이것을 용인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몇 가지 배경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교회는 이런 사람을 기꺼이 용납하고 심지어 자랑까지 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확실히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은 이것이 세속적인 그리스-로마 세계와 고린도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성적인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것을 간과하고 용인하고 심지어 자랑하기까지 합니까? 그들은 무엇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좋아요, 어쩌면 그들은 이것에 너무 익숙해졌거나 이것을 보고 있어서 그것이 그들에게 표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요, 아마도 우리가

그리스-로마 사회에 만연한 부도덕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고려하면 그들이 이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뭐야? 다른 건 없나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알았어. 그래요, 그들은... 아마도 그들은 바울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좋아요.

만약 이 개인이 후원자가 될 수도 있는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면 어떨까요? 아마도 이곳은 고린도 교회가 모였던 장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대개 그들은 부유한 개인의 집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유한 후원자,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그들이 그를 놓아주고 이것을 간과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 재정적 원천으로부터 자신을 단절하고 싶지 않고 이 사회적 지위를 가진 누군가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 있기 때문에 이를 버리고 대신 이 사람을 사회의 영향력 있는 구성원으로 자랑합니다.

즉, 5장은 지도자를 자랑하고, 그들을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대하는 등 후원자들과 매우 가깝거나 1장부터 3장과 특징을 공유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것은 또 다시 부유한 후원자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므로 누구도 이 사람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기꺼이 그를 간과할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는 열쇠는 세속적인 고린도의 배경뿐만 아니라 바울이 상황을 묘사하는 방식과 그의 해결책이 분명히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왜 그들이 기꺼이 관용하고 자랑하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 우리는 저자가 근친상간과 다양한 유형의 근친상간 관계를 비난하는 것을 봅니다. 그 중 하나가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와의 관계이다. 그래서 바울은 레위기 18장의 근친상간 금지 조항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도 근친상간 관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가 회중에게 함께 모여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했다는 사실은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임이 함께 모여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는 구약의 회중 개념을 반영합니다. 즉, 바울은 구약의 렌즈를 통해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이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렌즈와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특히 신명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특히 신명기인데, 다른 본문에서는 특히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공동체 내에서 순결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흥미롭게도 고린도전서 3장의 가장 유명한 문구 중 하나인 3장에서 바울은 3장에서 교회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는 “당신은 그걸 모르나요?”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구약의 성전 이미지를 고린도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 모이는 사람들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정결한 공동체, 거룩한 성전으로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그들에게 이 개인을 추방하거나 그들 가운데서 제거하고 이 공동체, 이 새로운 공동체, 이 성전의 순결을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러므로 바울은 죄를 범하는 개인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들을 구약의 하나님 공동체의 노선을 따라 거룩한 공동체로 묘사함으로써 교회에 할 모든 말을 갖고 있습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그들을 순수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들 가운데서 불순함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묘사함으로써, 바울은 교회가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그를 용납하지 말고, 대신에 사람들 자신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그를 그들 가운데서 제거할 것을 촉구합니다.

분명히 본문에는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힌트가 있지만 동시에 바울은 교회의 편협함, 그들이 정의롭다는 사실, 또는 내가 죄송합니다. 그는 교회의 관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아마도 그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이것을 간과하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그것은 배경인 고린도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예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왜 그를 놓아주고 싶어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평가할 수 없고 코린트안의 가치관에 비추어 이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회.

그 대신에, 그분은 그들의 상황을 새로운 빛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화된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와 그들 가운데 순결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구약의 렌즈 세트를 그들에게 제공하십니다.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또 다른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이것은 시작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제 서면 형식, 아마도 편지를 통해 그에게 다가온 문제에 대해 분명히 응답할 섹션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너희가 쓴 문제에 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나 남자에게 좋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구절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번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신미국표준성경(New American Standard Bible)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번역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인데, 이것을 보면 문구가 매우 유사한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둘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점은 바울이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따옴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매우 좋은. 다들 그 말을 듣나요? 매우 기민한 관찰입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구두점입니다. 이것이 구두점으로 표시된 방식은 이것이 바울이 말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남자가 여자를 만지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만연한 성적 부도덕 문제를 언급하고 그 문제를 멈추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접촉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서의 접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두점을 주목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쓴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이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을 주목하세요.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두점으로 표시하느냐에 따라 7장을 읽는 방법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7장은 교회 안에 만연한 성적 부도덕에 대한 바울의 반응입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의 말에 대한 반응입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날에도 기본적으로 발전을 이룬 사람은 바로 남자였을 것입니다. 그럼 어느 쪽인가요? 어려운 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신약성서의 원본 사본을 다시 읽을 수 있다면 바울이 원래 1세기에 썼을 때 발견했을 내용은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학기 초에 원고 그림을 올렸는데, 1세기에는 글을 쓰는 방식이 우선 단어나 글자 사이에 띄어쓰기 없이 썼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함께 실행되었을 것입니다.

둘째, 구두점, 마침표, 쉼표, 물음표, 따옴표 없이 작성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영어 번역을 읽을 때, 적어도 신약성서에서 모든 마침표와 쉼표, 인용 부호와 구두점은 모두 당신의 성경 편집자와 번역자들에 의해 거기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의 현대 번역은 어느 정도 번역만큼이나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해석이며, 구두점이 사용되는 방식조차도 우리가 읽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가 읽어야 하는 방식, 즉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었다는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도대체 왜 고린도인들이 그런 말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 중 적어도 일부는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 즉 성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고린도인들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글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플라톤적 유형의 이원론이나 영지주의적 사고 때문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기억하세요, 학기 초에 우리는 다양한 그리스-로마의 종교적, 철학적 선택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플라톤주의였습니다. 플라톤주의는

무엇보다도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구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궁극적인 현실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 육체적 욕구를 모두 거부해야 한다고 극단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생물 중 하나는 신체적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이러한 플라톤적 사고 방식 때문에 그들 중 일부는 육체적인 쾌락을 거부하고 대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옹호했을 것입니다. 이는 어떤 종류의 성적 관계도 맺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에 대해 대답할 것입니다.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7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온갖 조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분은 결혼한 남편과 아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혼한 사람들에게 연설합니다.

그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연설합니다. 그는 미혼이고 결혼과 결혼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독신이고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연설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양한 사람, 남성, 여성을 언급하므로 정신과 물질 사이의 플라톤적 이원론이 모든 문제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이 서신의 다른 곳에서 성적 부도덕 문제를 언급했고, 이전에는 기술적으로 고린도전서에서 더 이상 다루지 않는 편지를 언급한 것 같다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적 부도덕 문제. 바울이 그 문제를 다루었고 고린도에 그 문제가 너무 만연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바울의 명령과 고린도에 너무 만연했기 때문에 고린도인들 중 일부가 아마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 고린도인들이 궁금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결혼 관계 내에서도 기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성적 관계의 경계는 결혼 관계 안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지만, 결혼 관계 내에서 금욕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배우자와 이혼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독신인 사람도 결혼 관계 안에

있는지 궁금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와 관련된 고린도전서 7장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도덕에 대한 경고에 대한 바울의 명령 중 일부 때문일 것입니다. 고린도에는 이런 일이 너무 만연했기 때문에 어떤 고린도 교인들은 그냥 아예 피하고 결혼 관계에서도 삼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에서 결혼한 사람, 이혼했거나 이혼을 고려 중인 사람, 미혼이고 결혼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 등을 위한 다양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결혼 등의 주제에 관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다시금 고린도 문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인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매우 구체적인 문제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 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아마도 이번 학기의 나머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 맞아. 또는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다른 가능성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모든 고린도인들이 이 주제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7장에서 교회 내의 다른 그룹이나 파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5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지지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응, 가능했어? 내 말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대도시에는 어쨌든 아마도 여러 개의 작은 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모여서 단체로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나는 고린도인들에게 대답할 만큼 그것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가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였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두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전체에서 바울은 교회가 예배를 위해 모일 때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스스로 무엇을 하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그것에 대해 말할 것이 있지만 그는 고린도인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개인으로서 또는 다른 그룹, 사회, 사물에서 무엇을 하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펴보게 될 11장과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예배를 위해 함께 모였을 때 나타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별도의 집에 있든, 특히 한 집에 있든, 저는 Paul이 여기서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지 정확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교회가 예배를 위해 모일 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11장 후반부, 11장 17절부터 34절입니다.

이제 그가 17절부터 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내가 너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그가 지금까지 그들에 대하여 많은 칭찬을 받은 것임이니라. 이는 너희가 모일 때에 합당하지 아니함이라." 더 좋지만 더 나쁩니다. 우선, 여러분이 교회로 모일 때 바울이 말하는 방식에서 아이러니나 역설을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러니나 모순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하나의 교회로 함께 모이지만 그들 사이에 여전히 분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함께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 11장에서 말하려는 내용이 여전히 세속적인 고린도의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의 결과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지위 사이의 분열, 특히 부자와 가난한 자, 후원 고객 사이의 분열, 그러한 종류의 분열은 이제 교회로 스며들어 바울이 11장에서 다루려고 하는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교회로서 함께 모이되 실제로는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니라.

나머지 부분에서는 1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당파가 있어야 하리니 그래야 너희 중에 누가 누구인지 드러나리라 너희가 모일 때에 주의 것을

먹는 것이 참이 아니니라” 저녁. 그러므로 이것이 바울의 주요 문제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일 때 그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또는 그것을 성찬식, 성찬식, 또는 우리가 부르는 다른 용어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는 그것을 주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은 성찬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찬이나 주의 만찬을 위해 함께 모일 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먹을 때가 되면 각자 자기의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뭐라고요?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까? 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선, 1세기에 그들이 성찬을 행한 방식이 우리가 익숙했던 방식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내가 성장해 온 모든 전통에서는 결국에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일요일입니다.

비록 내가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는 훨씬 더 자주 있었고 나는 그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갖고, 예배는 찬양대와 설교로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내원들이 와서 성찬식을 하고 모두가 자리에 앉아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넘기고 당신은 그것을 마신다. 그리고 찬양대가 다시 와서 노래를 부르면 문밖으로 나갑니다. 1세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찬은 교회가 함께 먹는 식사 맥락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먹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식사의 맥락에서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어딘가에서, 아마도 끝 무렵에, 주의 만찬을 축하하는 것이 절정에 달했을 것입니다. 성찬식, 성찬례, 주의 만찬. 이제 문제는 다시 고린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파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분열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바울은 여러분이 기념하는 것이 실제로는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제기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말했듯이 후원자-고객 관계, 사회의 부유한 엘리트 구성원과  
가난한 구성원 사이의 구별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문제가 이제 유럽  
사회로까지 침투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이제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생각에 이것은 초기 그리스-로마  
자료를 많이 읽고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이해할 때 그럴듯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부유한 구성원 중 일부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나 교회들은 부유한 성도의 집에서 모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작은 가정교회를 위해 기본적으로 자신의 집과  
재정적 자원을 제공했을 후원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적어도 그  
당시에는 고린도 사회의 더 부유한 교회 구성원의 꽤 큰 집 환경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부유한 회원 중 다수는 아마도 일의 필요성에 그다지 의존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여 식사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들은 아마도 하인들로부터 완전한 식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너희가 와서  
먹으라고 말한 이유는 나중에 33절에서 너희가 모두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마도 늦게 도착한 것은 가난한  
회원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일을 해야 하고 부유한 회원은 그럴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부자, 먼저 온 사람들, 대부분은 좌석이 제한된 일반 식당으로  
가서 모두 도착하여 하인들에게 정식을 제공 받았을 것입니다. 도착한 가난한  
회원들은 아마도 집 안마당, 즉 더 작은 방에서 만나거나 앉아야 했을 것이고,  
실제로는 더 적은 양의 음식, 즉 남은 음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더  
적은 양의 음식을 제공받았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고린도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도착하면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나중에 아마도 일을

마치고 와서 식사를 합니다. 적은 음식을 먹자고 바울은 말하는데 당신은 그것을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까? 그의 요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연합을 축하해야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연합을 촉진하고 표현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더욱 나아가 여러분 가운데 사회적 분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풀을 그토록 화나게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지시가 끝날 무렵에 그는 그들에게 정확한 구절을 찾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27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을 먹거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언제든지, 즉, 누구든지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 앞에 책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내 자신의 전통을 언급하면, 언젠가 성찬식에 있을 때, 보통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읽고 여러분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것, 이는 일반적으로 고백하지 않은 죄가 당신의 삶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석한 이후로 당신이 범한 모든 죄를 생각할 수 있는 약 3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한 달 전일 수 있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하지만 내 말은, 당신은 지난주나 한 달 또는 무엇이든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그리고 뭔가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실제로 성찬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으며,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합당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삶에 죄가 있어서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확실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Paul이 의도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그 맥락에서 읽으면 그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자백하지 않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주의 만찬을 사용하여 교회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이러한 사회적 구별을 영속시키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이 말한 대로 21절부터 보면 먹을 시간이 되면 각자 자기의 만찬을 가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너희가 먹을 집이 없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며 가진 것이 없는 자를 욕되게 하느냐? 그러므로 바울이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말을 하는 주된 오류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비하하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 분열이 있을 때나,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모욕하거나, 거절하거나, 갈등이 있을 때 성찬을 취하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주의 만찬을 사용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자라난 유서 깊은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성찬은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성찰하는 시간이지만, 아마도 우선순위는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굴욕을 주거나 불화나 분열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여러분이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취하고 있다고 말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욕한 적이 있나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분별한다는 것은 이 주의 만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토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됨을 선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취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제가 발생한 배경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신약 역사와 문학 과정의 고린도전서 16장의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